

시끌벅적 e-스타



색다른 애국가 들어보셨나요?

이미 존재하는 콘텐츠, 비틀고 뒤집어 보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 독특한 표현방식으로 인터넷을 즐기는 신세대들의 특징이다.

애국가도 마찬가지다. 록 버전이나 외국어로 번역해 불리는가 하면 피아노나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애국가 동영상도 ‘색다르다’며 이곳저곳으로 퍼날라지고 있다. 랩으로 애국가를 부른 동영상도 나올법하다.

지난 1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애국가마저 감미롭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동영상은 기존 애국가를 슬로우 록버전으로 볼렸다.

인터넷에 올라온 뒤 조회수만 2만건이 넘어섰을 정도로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

고 있다.

피아노를 이용, 애국가를 연주한 동영상은 재즈 애국가로 불리면서 10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클릭할 정도다.

애국가 때문에 스타로 떠오르기도 한다. 미국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마이페이스 등에 소개되면서 화제가 된 이민지(18)양은 중국어·일본어·영어 등 3개 국어로 애국가를 불러 주목을 받았다. 중국 및 일본 전통의상, 미국 치어리더 복장 등 의상도 직접 준비해 만들었다.

이외 머리가 희끗한 흑인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이용해 애국가를 연주하는 모습이나 외국 오케스트라의 애국가 동영상도 관심을 모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의승의 음·악·산·책

빌리 할리데이(Billie Holiday·1915-1959)는 최초의 재즈 가수, 재즈 최고의 디바 등으로 표현되는 사람이다.

대개 천재, 혹은 대가들은 그들의 앞 세대에 약간의 빛을 지고, 다음 세대에게는 그 보다 훨씬 막대한 빛을 남긴다. ‘온고(溫故)’는 작고 ‘지신(知新)’은 거대하다. ‘빌리’는 그런 유산을 남긴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재즈의 역사에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 세대를 초월해서 21세기인 지금도 사람들에게 그녀의 음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큰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녀의 사후 50년, ‘리사 액달’, ‘마들레인’, ‘레이디 킴’등의 목소리(vocal)를 들어 볼 때, ‘빌리’에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성들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러한 공유는,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

었고, 주옥같은 그녀의 노래들에는, 술과 장미와 약물에 젖은, 그런 나날의 그림자가 비에 젖은 포장도로 처럼 드리워져 있는데, 레이디 킴의 보컬에서는 그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박상민’을 보고, 의외의 느낌을 가진것과 비슷할지, ‘레이디 킴’은 ‘빌리’의 맑고 친절하며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의 모습인 것이다.

‘빌리의 삶을 그린 뮤지컬 모노드라마의 히로인’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레이디 킴’, 너무도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는 ‘빌리 할리데이’.

사람들은 그녀의 삶속,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연민이나 애뜻한 마음을 갖고, 그녀의 음악에서는 퇴폐적 아름다움을 기대하기 일쑤다.

심대의 나이에 윤곽녀의 삶을 살았고, 그것도

빌리 할리데이가 들려주는 음악

들이 빌리에게서 영향을 받았고, 그들이 빌리에게 빛진 세대에 속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레이디 킴(Lady Kim)’의 경우, “‘빌리 할리데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녀는 빌리의 삶을 그린 일인극, 일인 뮤지컬의 주인공으로 뿔쳤고, 그래서 유명해진 만큼, 빌리의 그림자를 더욱 지우기 힘든 사람일 것이다.

사실 ‘레이디 킴’이라는 이름 역시 ‘콜럼비아’ 레코드에서 녹음된 1950년대, 빌리의 대표적인 음반 ‘Lady in satin’을 연상하게 하며, 그녀의 대표음악 ‘Lady sings the blues’를 생각하게 하는데, 그 음악들을 누군가 듣게 된다면, 많은 평론가들이 사용했던 말 ‘고독과 허무의 미학’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빌리 할리데이’에게는 40년대 중반 이후, 술과 남자와 마리아나와 아편의 세월들이 있

할 수 없게 되어서, 우스꽝스러운 역할의 백댄서에 지원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그와 같지 않을까.

‘백댄서’치고는 너무도 모자란, 불쌍한 그녀에게 구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노래는 할 수 있겠니?” 바로 그 순간이 위대한 재즈가수의 탄생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빌리’도 세상도 그 순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1959년, 그녀는 TV앞의 일인용 소파에 앉아서, TV를 통해 보는 세상을 ‘옥’이나 해 대며, 쓸쓸하게 세상을 마친다.

그 때는 7월, 여름이었다.

“I’m a fool to want you” “당신은 내게 과분해요”와 같은 off beat의 노랫말들을 우리들의 비에 젖은 길 위에 남겨둔 채로.

〈음악 칼럼니스트〉

뉴스퀴즈

69. 미국프로야구 뉴욕 메츠에서 방출된 ‘한국인 메이저리거 1호’인 이 선수가 휴스턴 애스트로스에서 ‘제2의 야구 인생’을 열어가게 됐습니다.

이 선수는 최근 휴스턴행을 전격 결정, 마이너 리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4년 LA 다저스에서 처음 빅리거로 데뷔한 뒤 2002년 텍사스 레인저스, 2005년 샌디에이고, 올 해초 뉴욕 메츠를 거쳐 다섯 번째 팀에 몸 담게 된 것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박찬호 ② 박지성 ③ 이동국 ④ 이영표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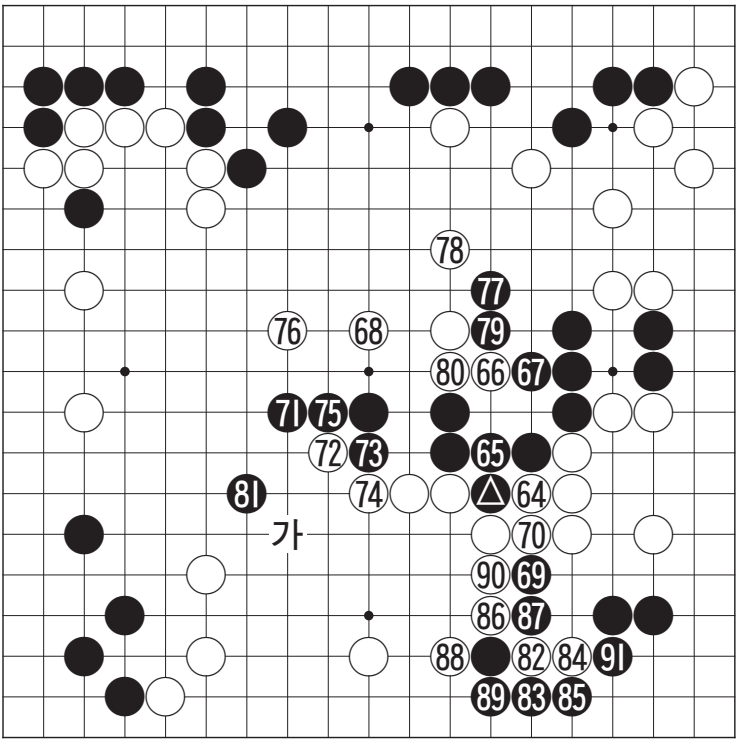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1일(음 5월 7일 丙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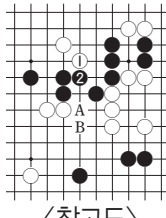
子	36년생 주번의 달궁한 달은 밭지도 말라 땀땀이 될 것이다. 48년생 다투면 손재야 양보하면 득이 된다. 60년생 지금은 고봉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72년생 어른의 지혜를 보여주면 주변의 인제가 따르리라. 84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되고 급하면 실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3, 38
丑	37년생 광범한 것이 좋은 것이니 가볍게 움직이라. 49년생 자신에게 신경을 써라 자식은 자신의 희망이다. 61년생 실물이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하라. 73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85년생 오늘은 귀를 막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 09, 29
寅	38년생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 50년생 손재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으나 실사숙고해서 결정하라. 62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해결된다. 74년생 처음은 괴롭지만 나중은 幸福하다. 행운의 숫자 : 14, 40
卯	39년생 두드러라 그러면 열리리라. 51년생 득도 많고 실도 많은 날이니 마음을 비우라. 63년생 靑上의 풀을 찾아보라 마음이 평안하리라. 75년생 감정의 변화가 심한 날이니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행운의 숫자 : 07, 37
辰	40년생 아침은 무럭무럭 오르는 활발해진다. 52년생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하면 용기가 생기리라. 64년생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친구가 많으리라. 76년생 보기 좋은 벽이 맞도 좋다. 행운의 숫자 : 05, 34
巳	41년생 맛있는 음식은 친구와 나누어 먹어라. 53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온다. 65년생 옛 문서는 버리고 새로운 문서를 잡는다. 77년생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라. 행운의 숫자 : 17, 26
午	42년생 이왕 출발했으면 앞만 보고 가거라. 54년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려보라 만족은 하리라. 66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78년생 슬데없는 걱정은 버려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33
未	43년생 불연이 이별할 수도 있으나 가정평화는 피하라. 55년생 자신의 입으로 구슬수가 생긴다. 67년생 바귀탈린 것은 모두 조심해야 하리라. 79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행운의 숫자 : 08, 30
申	44년생 추억은 아름답지만 과거에 억매이지는 말라. 56년생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 68년생 걱정을 버려 생각했던 걱정은 잘못대로 일어나지 않을 내용이다. 80년생 정도를 걸으면 해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11, 25
酉	45년생 불필요한 구매로 파소비가 있을 수다. 57년생 작은 것은 소중한 것이다. 69년생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81년생 현실성이 없는 일을 일찍 포기하면 오히려 득이 온다. 행운의 숫자 : 04, 33
戌	46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빌리면 손해가 크다. 58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긴다. 70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밑에서 찾지 마라. 82년생 대가를 바라지 말고 人德을 베풀어라. 행운의 숫자 : 23, 26
亥	47년생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59년생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가져라. 71년생 돈은 생기자 소비가 크다. 83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행운의 숫자 : 12, 27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서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2회전



〈참고도〉

하나가 흑 대마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백 64로 몰고 66으로 모양을 파괴한 것이 적시의 응징으로 뼈아픈 일침이다. 이 한방으로 흑 대마는 끝없이 시달림을 당하게 된다.

흑 ▲를 생각했으면 ‘참고도’에서 보는 것처럼 백이 1을 선수하기가 힘들다. 다음 흑이 ‘A’로 한집을 만드는 수와 ‘B’로 차단하는 맛이 남기 때문이다. 이것은 쫓기고 있는 흑의 입장

빠아픈 일침

白 유병수 5단 (포스코)

4보(64~91)

전지용 5단이 지나가는 길에 무심코 흑 ▲와 백 ●를 교환한 것이 대박수였다. 이 약수교환 하나가 흑 대마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백 64로 몰고 66으로 모양을 파괴한 것이 적시의 응징으로 뼈아픈 일침이다. 이 한방으로 흑 대마는 끝없이 시달림을 당하게 된다.

흑 ▲를 생각했으면 ‘참고도’에서 보는 것처럼 백이 1을 선수하기가 힘들다. 다음 흑이 ‘A’로 한집을 만드는 수와 ‘B’로 차단하는 맛이 남기 때문이다. 이것은 쫓기고 있는 흑의 입장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조훈현 9단, 파죽의 6연승

조훈현 9단이 20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회 지지옥션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항전 제21국에서 김혜민을 166수 끝에 백불계로 꺾고 6연승을 기록했다.

남성팀의 유일한 생존자인 조 9단은 김은선을 시작으로 김혜민까지 6명의 주자를 제압하는 노익장을 과시하며 연승상금 500만원을 확보했다.

벼랑까지 몰렸던 시니어팀은 조훈현의 활약으로 우승까지 바라 볼 수 있는 고지에 올랐다. 현재 여성팀에 남은 기사는 2명.

조 9단은 박지은과 21일 같은 장소에서 대국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31>

Would you like to go to the pool with me?
저랑 수영장에 가실래요?

A: Today's just right for swimming.
B: Right! Would you like to go to the pool with me?
A: I'd love to! I want a lovely sun tan before the party next Friday.
B: Don't get sunburned instead.
A: Right! I got it.

A: 오늘은 수영하기에 정말 좋은 날이죠!
B: 그래요! 저랑 수영장에 가실래요?
A: 물론이죠, 다음 주에 있을 파티이전에 멋있게 sun tan을 해야겠어요.
B: 대신, 너무 태우지는 말라구.
A: 네, 알았대요!

instead = instead of a sun tan
sunburned : 햇볕에 검게 탄
수영장에서 하루 종일 수영하려면 얼마죠?
= How much does it cost to swim all day at the pool?
여기서 저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 How long does it take from here?

오하요우 니혼고 <931>

遠慮(えんりょ)は要(い)りませんよ
체면 차리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A: まだたくさん残(のこ)っていますね。家内(かない)の自慢料理(じまんりょうり)ですからどんどん食べてください。
B: ええ、とても美味(おい)しくて、たくさんいただきました。
A: 遠慮(えんりょ)は要(い)りませんよ。
B: もうお腹(なか)が一杯(いっぱい)で動(うご)けないくらいですよ。

A: 아직 많이 남아 있군요. 집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요리니까, 많이 많이 드세요.
B: 예에. 아주 맛있어서 많이 먹었습니다.
A: 체면 차리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B: 이제 배가 불러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입니다.

残(のこ)る : 남다
家内(かない) : 집사람, 마누라
自慢料理(じまんりょうり) : 잘 할수 있는 요리
遠慮(えんりょ) : 염려 걱정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 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122>

我有点儿感冒
저 감기 걸렸어요

A: 你脸色不太好!
Nǐ liǎnse bú tài hǎo!
니 리엔쎄 부 타이 하오!
B: 是啊, 我有点儿感冒。
Shì a, wǒ yǒu diǎn gǎnmào.
시아, 워 요우 디얼 관 마오.
A: 感冒了, 严重吗?
Gǎnmào le, yánzhòng ma?
관 마오 러, 엔 쑹 마?
B: 不太严重, 嗓子有点儿疼。
Bú tài yánzhòng, sāngzi yǒudiǎn téng.
부 타이 엔쑹, 썹쯔 여우 디얼 텡.

A: 너 얼굴 안색이 별로 안 좋아!
B: 그래, 나 감기 걸렸어.
A: 감기 걸렸구나, 심하니?
B: 그다지 심하지 않아. 목이 조금 아파

脸色 [liǎnse] 얼굴색
严重 [yánzhòng] 엄청하다 심각하다
嗓子疼 [sāngziténg] 목감기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548>

韋編三絶 (위편삼절)
가족 위, 역을 편, 석 삼, 꿇을 절

위편삼절(韋編三絶)은 가족 끈으로 묶은 책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으로, 한 권의 책을 되풀이 하여 읽어 숙독(熟讀)함을 비유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대나무 조각이나 비단 등에 글을 썼다. 이 때 사용된 대나무 조각을 죽간(竹簡)이라고 한다. 대나무를 불에 쪼여 대의 푸른 기운을 빼내고 대쪽으로 만들어 종이 대신 글을 썼던 것이다. 이 죽간을 몇 십장씩 모아 위쪽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철(綴)하였는데, 이 때 가족 끈을 사용하였다. ‘위편삼절’이란 그 끈이 몇 번이나 끊어지도록 책을 계속 읽는 것이다. ‘삼절(三絶)’이란 딱 세 번에 한정된 수가 아니라 몇 번이나 되풀이 하여 끊어진다든 의미일 것이다.

이 말은 사마천이 ‘사기(史記)’에 ‘공자전’을 지으면서 공자(孔子)가 만년(晩年)에 역경(易經)을 애독(愛讀)하여 위편삼절에 이르렀다고 서술한 것에서 유래한다. 공자는 역경에 대한 많은 연구 끝에 “내가 몇 해를 빌어 이와 같이 하면, 나는 역경에 있어서 빛나게 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역경에 심취(心醉)하였다.

〈한예원(韓睿嫻)〉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